

대구주보

성령 강림 대축일, 청소년 주일
2020. 05. 31. (가해) 제2216호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성령을 보내심』, 안토니오 팔로미노, 1696~1705년,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저 산 너머〉, 아주 특별한 씨앗



교구 총대리 |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며,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에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표현의 능력을 주시어 다른 언어로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전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제1독서: 사도 2,1-11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였고(마태 18,20 참조),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며,(마태 28,20 참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 14,16-17 참조)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며, 말씀과 성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비추심에 따라 읽어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체의 경우도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여, '성령의 힘으로'(감사기도 제2양식) 성체와 성혈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을 모시고 '공동선을 위하여'(1코린 12,7) 활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그린 영화 〈저 산 너머〉를 보았습니다. 추기경의 어머니는 “느그들(너희들)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씨앗이 심어졌지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년 김수환은 ‘내는(나는) 신부님 안 할 거다. 인삼 장수 할 거다.’라고 답했지만, 나중에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진 ‘아주 특별한 씨앗’은 바로 세례와 견진을 통해 심어주신 ‘성령의 씨앗’,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듯이’(제2독서: 1코린 12,3), 각자에게 심어진 아주 특별한 씨앗도 ‘성령의 힘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주 “오소서, 성령님”(부속가: 성령 송가)이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청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다른 장소가 아닌 바로 이곳에서,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지금, ‘공동선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필독**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했던 50일간의 온라인 신앙생활

청소년국 차장 | 여현국 디모테오 신부

지난 50일간 교구 청소년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본당에서 미사와 주일학교 활동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을 맞이해야 했던 때에, 주일학생들과 교리교사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참가 신청 후,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주어지는 그날의 활동(미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활동한 내용을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알리면 청소년국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온라인(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등)으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합니다. 그럼으로써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온라인으로 서로의 신앙생활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청소년 주일)까지 부활 시기 50일간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초등부 1학년 어린이부터 자녀와 함께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양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35차 세계 젊은이의 날(2020년 4월 5일)을 맞이하여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라는 주제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프로그램’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담화문의 내용을 다섯 가지 주제(제대로 보기, 함께 아파하기, 함께 있기, 말씀으로 일어나기, 열정과 꿈을 가지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나아가기)로 나누어 한 주

간씩 담화문의 정신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접속’만 있을 뿐 소통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며, 진정한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기기를 활용하라 하셨는데, 서로 간의 만남이 단절된 가운데 하느님과의 관계마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매일매일 충실히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주일학교를 못 가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는데 매일 기도하고 미션도 하고 미사도 보니 너무 행복하고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해요.”

“아침에 오는 카톡 알림에 하루 시작이 설레네요.

함께해서 그런지 더 힘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르듯 하루하루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을 걸 확신하기에 오늘도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느님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 시기가 끝나는 오늘이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활발한 본당 활동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부디 이제는 온라인에서가 아니라 반가운 얼굴로 성당에 함께 모여 하느님께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필로**



활동 모습 동영상 보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비춰보세요)

교황청, 모든 이를 돕기 위한 국제적 대응과 투명성

2020년 5월 19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창욱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제 비상사태는 인류를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들 간 상호의존성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연대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최우선적인 선익으로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황청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유엔 전문기구 상임 옵저버 이반 유르코비츠(Ivan Jurkovič) 대주교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이같이 힘주어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는 올해 사상 처음 화상으로 개막됐다.

교회의 기여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의 변방에 살고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내버리지 말기를 수차례 촉구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아와 불안정, 그리고 “비상상황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국제적 대응”에 교회가 제공한 기여를 강조했다. 곧, 5000여 개의 가톨릭계 병원들과 가톨릭교회에 속하는 1만 6000개 이상의 무료 진료소들이다. 이들은 지치지 않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이 의료적인 돌봄과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수도회, 본당, 그리고 사제들”도 최전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고 있다.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개인보호장비의 공급을 위해” 교황청이 세계보건기구의 비상기금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했다.

전쟁을 멈추고 백신을

아울러 교황청은 세계보건기구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필수적인 의료 조치를 존중하면서 집회와 종교 예식 거행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교황청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도적인 도움을 용이하게 해주도록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호소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모든 국가가 자국민을 돌보고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극빈 국가의 부채를 완전 탕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줄여주면서 국제 제재를 완화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를 환기했다. 유르코비츠 대주교는 교황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끝으로 세계 곳곳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법과 백신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찾도록 과학적 역량을 합치기를 권고했다.

정찬문 안토니오 (1822~1867년)



경상도 진주 허유고개 중촌(현 경남 진주시 사봉면 중촌리)의 양반 집안에서 1822년에 태어난 정찬문(鄭燦文) 안토니오는 먼저 영세 입교한 아내로부터 뒤늦게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런 다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니, 그때가 그의 나이 41세 때인 1863년이였다.

이후 안토니오는 3년 이상을 열심히 수계하였다. 그러던 중 1866년의 병인박해가 일어나 사방에서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고, 그도 그 해 가을에 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때 일가친척과 평소에 알던 그 지방의 하급 관리가 와서 “배교한다는 말만 하면 끌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유혹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주로 끌려간 정찬문 안토니오는 25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종종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동안 그의 가산은 적몰되고 가족들은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아내는 밥을 빌어다 옥으로 가져가 그에게 넣어주곤 하였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다시 옥에서 끌려 나와 무수히 매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 다시 옥으로 끌려 들어간 뒤 그날 밤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이때가 1867년 1월 25일(음력 1866년 12월 20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안토니오가 순교한 뒤 그 시신은 3일 동안 옥에 버려져 있었다. 이후 그의 조카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 고향 인근에 장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의 몸이 굳지 않았고, 얼굴에 화색이 있어 산 사람 같았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환경의 날 담화

성장 신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환경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사도 2,1-11	제 2 독 서	1코린 12,3ㄷ-7,12-13	복 음	요한 20,19-23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신천지 및 유사 종교(사이비) 침투를 조심합시다!

신천지 및 각 유사종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자로 위장합니다.

포섭 활동을 유도하면 신천지 및 유사종교 신자로 의심하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QR코드를 통하여
교구청 홈페이지의 “주의! 유사종교”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안내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6일(토) 10:30 월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초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말씀과 함께 성소자 모임

일시: 매주 둘째주 일
(성소 문의 항상)
장소: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대전 분원
문의: (010)8683-6848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6.7(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만 35세
문의: (010)9937-0901

몸기도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 피정

일시: 6.29(월)~7.6(월)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내용: 신·구약 완독
문의: 783-9817 / (010)3360-9817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입문 피정

일시: 8.5(수)~9(일)
장소: 서울 성베네딕도회 피정의집
지도: 허성준 신부, 이경희 수녀
회비: 36만원(1인실)
문의: (010)4731-2468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보행교통사고 방지 캠페인

교우분들의 새벽미사 길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구광역시 2019년 전체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40.2%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중 나이대는 60~80대(66.7%)가 가장 많았고 시간대는 새벽 2시~10시(48.7%)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새벽미사 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 교우분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행 시에는 반드시 밝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2. 안전한 보행 및 횡단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싹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종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향출발, 미사4회
성지 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순례 1박2일
전국 15개 교구, 12개 코스 매월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오 완 수 (바오로)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장약슬(요셉) 신부
1937년 5월 31일
- 김계룡(베드로) 신부
1947년 6월 2일

교육 | 모집 | 기타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 주말

6월 ME 주말: 6.5(금)~7(일)

쉐신 주말: 7.25(토)~2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한국휴먼모래놀이상담사

3급 과정 연수 모집

일시: 6.12(금)~13(토)

장소: 남대영기념관 4층

인원: 10명(선착순) / 수강료: 35만원

문의: 629-1117 / (010)6416-8114

학산셋별학교 교육생 모집

마감: 6.30(화) / 입학식: 6.1(월) 예정

내용: 검정고시 시험대비 교육지원

대상: 중·고등 검정고시 학력취득 희망자

신청: 전화 및 내방접수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서류: 교적증명서

문의: (010)3516-1911 / (010)3529-3898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 모집 안내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약 250억원

학생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학

가톨릭추천전형 31명

문의: 850-2580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채용 | 안내

교구 청년국 직원 채용

서류: 청년국 홈페이지 참조

마감: 6.13(토)

접수: 우편 또는 방문

문의: 422-6692

주교좌 계산성당 사무직원(사무장) 채용

자격: 40세 이상, PC가능,

1종 면허 소지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6.13(토)

문의: 계산성당, 254-2300

월성성당 관리장(계약직) 채용

자격: PC가능, 1종 면허 소지자

(60세 이하)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월성성당, 635-0963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권정선(베로니카)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헤 렌 디자인하우스

프리미엄 디자인가구

박성용(알밭도)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권나경(수산나) (엑스코 가구물 지하2층)
Cell : 010 7766 3198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박 중 원 (소시무)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의 장 주 현 (비비안나) · 이 무 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ANGEL 포장이사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좋은 병원

날씨원한위대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세부 전문의 노성준 위암연구소 이사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몬스마드리드

법어대이커서센터

프리미엄 주아간보호/신축4층건물(센터완공)

원장 차명진(에스델) 사회복지학 박사

법원 뒷편, 범어공원(아시골) 앞

053)744-0900 | 010-2020-8304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징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3인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대문> 053)670-6000